

아이들은 어떤 책을 싫어하나

이맘 때면 아동도서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다. 또 아이들의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어른들의 눈에 비친 것일 뿐, 정작 아이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계간 「서강어린이」(봄, 서강출판사)에 실린, 국민학생 50명이 말하는 “난 이런 책이 싫어요”는, 책에 대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여서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 공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싫다. 지루하고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책들은 줄거리를 읽으면서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궁금증이 없다.

■ 주인공이 죽는 책은 읽기 싫다.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착한 사람들을 구해준 용감한 주인공을 왜 꼭 죽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 우리나라의 얘기만 있는 책은 읽기 싫다.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사는 모습과 생각이 나와 어떻게 다르지 알 수 있는 책이 훨씬 흥미롭다.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실되지 않게 써 있는 책은 싫다.

■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는 재미없다. 위인들의 이야기는 꼭 전기를 읽지 않아도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머니께서 강제로 읽으라고 사 주시는 책은 읽기 싫다. 그런 책은 거의 공부에 관한 것이고 너무 교훈만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어려운 말이 써 있는 과학에 관한 책은 읽기가 힘들어서 싫다. 다른 책들은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들이 평소애 쓰는 말 그대로 써서 재미있고 읽기도 쉬웠다.

■ 집에 없는 책은 힘들게 서점에 가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읽기 싫다. 집에 있는 책도 읽지 못했다.

고, 서점에 가면 너무 많은 책이 있어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나는 책은 무조건 읽기 싫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가 사다주시는 책은 재미가 없고 따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화책은 무지무지 좋다. 히히!

■ 너무 착한 어린이가 나오는 책은 싫다. 장난도 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런 친구가 주인공이면 좋겠다. 똑똑한 애가 주인공이면 약이 오른다.

■ 훌륭한 일을 한 어른들의 얘기는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시간에 따라 이어서 얘기가 진행되므로 지루해서 읽기 싫다. 어린 시절의 얘기보다는 어른이 되서 이룩한 좋은 일만 써 있어서 우리랑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 나는 책을 고를 때 꼭 엄마와 같이 간다. 그때마다 엄마는 글자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읽으라고 하신다. 힘들게 골라서 읽었는데 틀린 글자가 나오면 다음부터는 읽지 않는다.

— 편집부

출판저널

통권 제127호 / 1993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鍾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孝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景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暉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勳 | 李重漢 |
| 李載敏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鍾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鍾鎭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오늘날의 명저 가운데 출판 당시에는 금서로 낙인이 찍혔던 전력을 지닌 책의 수는 헤아리기 벅찰 정도로 많다. 따라서 선각자들의 순교자적 희생을 증명하는 금서목록을 훑어보는 일은 묘한 독서경험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6년 초판이 발행된 「禁書를 통해 본 近代思想史」(한상범, 정음사)가 바로 그런 책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문화의 개화기인 16세기 르네상스로부터 시민혁명기인 18세기말 프랑스혁명까지의 근대사상의 발자취를 금서로 더듬어 보고 있어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백과전서」의 간행

「백과전서」는 프랑스 계몽사상을 집대성한 당시대의 최고의 걸작이다. 편집자 디드로가 말했듯이 “이 책은 곧 사람들의 마음 속에 틀림없이 혁명을 불러일으킬” 화약고가 되었다. 「백과전서」는 말 그대로 백과전서, 또는 학문 예술 공예의 합리적 사전이다. 영국의 체임버스의 「사이클로피디아」(1728)가 최초의 과학적 체계에 따른 학문의 체계적 서술이라고 한다. 디드로의 「백과전서」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편집되게 되었다.

1745년 체임버스 저서의 프랑스어역을 계획한 영국인 밀즈가 파리의

출판업자 르 브르통에게 그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출판특허까지 받은 출판업자 르 브르통은 밀즈나 그의 조수와 금전상의 문제로 불화를 일으켜 재판에까지 이르러 특허도 취소당했다. 그러나 르 브르통은 다른 업자를 끌어들어서 아카데미 회원 파드 말베즈에게 그 편집을 의뢰했다. 말베즈는 번역어론 별반 뜻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일에 쫓겨서 열의를 잃어버렸다. 르 브르통은 그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편집장을 모색했다. 디드로가 이 때에 발탁된 것이다(1746). 당시 디드로는 의화사전을 번역했을 뿐인 무명인이었으나, 그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디드로는 그의 친구인 달랑베르와 함께 볼테르 몽테스키외의 등 당대 일류의 학자 문인들의 협조를 얻어 일을 진행해나갔다. 1748년 4월 30일에 새로이 출판특허를 받아서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이 작업에 착수한지 얼마 안되어 디드로가 「맹인시간」(1749)으로 투옥되는 등의 불운이 뒤따랐으나, 1750년에 디드로는 「백과전서」의 취지서를 써서 각계에 8천부를 배부하였다. 그에 의하면 본문 8권, 도판 2권(실제는 본문 17권, 도판 11권이 되었다)을 예정으로 하고 신청기간은

1751년 5월 1일까지였다.

1751년 7월 1일에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노고 끝에 「백과전서」 제1권이 발간되었다. 본문 915페이지로 발간부수 2,050부였다. 3년에 걸친 노고의 산물이었다. 당시 디드로는 37세, 달랑베르는 33세였다. 독서계의 반응은 호평이었으나, 취지서 배부 당시부터 반대공작을 한 이에즈스회(신교를 반대한 극렬분자의 승단)에선 이 책의 ‘도용’과 ‘무신앙’을 들어 비난하기 시작했다. 도판의 인쇄엔 도용의 의심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았으나, 비난의 초점은 ‘무신앙’ 문제였다. 「백과전서」는 신비주의, 맹신과 독단 종교적 불관용을 맹렬히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집필자인 2명의 승려가 국외로 망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752년 1월에 제2권이 나왔다. 제2권은 발간 즉시 국왕의 이름으로 발매 금지처분을 당했다. 이에즈스회원과 황태자의 사부 보와이에게 책동한 것이다. 출판 감독장관 말젤브는 르 브르통 서점에 있는 「백과전서」의 원고를 압류하도록 명령하긴 했지만, 디드로에게 급보를 전하고 압류집행을 고의로 지체하여, 디드로는 출판 감독장관의 아버지이고 대법관인 라모와니용 집에 원고를 숨

겼다. 당시 정부 측근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디드로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들 중에 국왕의 애인 풍파두르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상인의 딸이고 정세 청부인의 아내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진력한 결과 發禁令이 내리지 3개월만에 해제조치가 되었다. 그리하여 1753년 11월에 제3권이 간행되고, 계속해서 1754년에 제4권, 1755년에 제5권, 1756년에 제6권, 1757년에 제7권 등이 계속 속간되었다. 그러나 다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루소와 달랑베르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이다. 달랑베르가 ‘제네바’ 항목에서 국장을 설치하라는 것이 루소의 분노를 산 것이다. 이에 겹쳐서 1759년 3월, 국왕의 고문회의는 「백과전서」의 출판특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자 집필진이 속속 탈퇴해나갔다. 7월에는 출판특허 취소에 따라 예약구독자 각 1인에게 72리이불을 환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결국 파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디드로는 묘책을 강구했다. 「백과전서」의 도판출판은 취소된 것이 아니니 이에 대체하여 환불조치를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불조치를 신청하는 예약자는 한사람도 없었다.